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진료를 해 드립니다”

효의 사회화 실현에 앞장서는 ‘연꽃마을’

육 방예경(六方禮經)에 부처님
이 이르시기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잘 받들어 이쉬
움이 없게 하고 할 일이 있으면 먼
저 부모에게 알리며, 부모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거스르지 않고 부모
의 당부를 어기지 않으며, 이와 같
이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 효도로
섬기면 부모는 편안하여 아무 걱정
이 없다”고 했다.

굳이 성현의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동양에서 효는 백가지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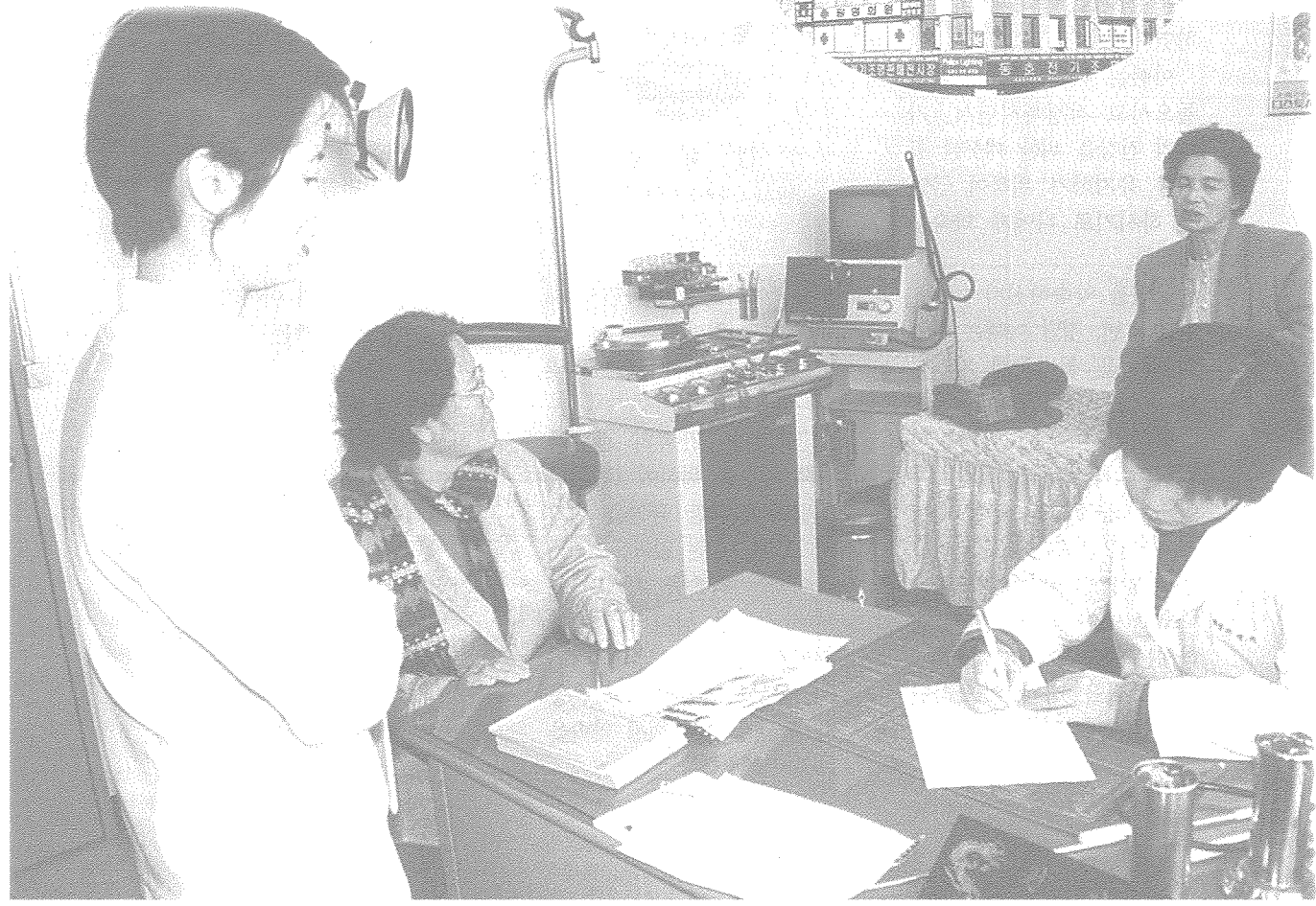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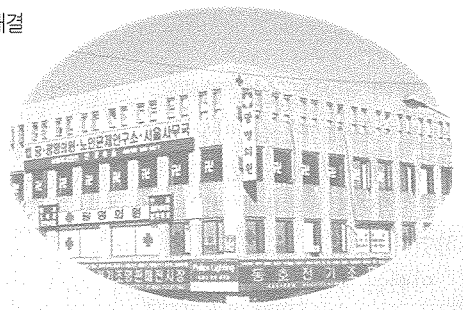
실의 근본이라 했는데, 요즘은 우리
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핵가족이
라는 미명하에 마땅히 봉양 받아야
할 부모님들을 소외와 외로움 속에
방치해 놓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따뜻한 정과 관심이 필요
한 노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
하고 노인들이 제대로 대
접받는 사회를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하는 곳

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연꽃마을이 노인들을 위해 첫 씨
앗을 뿌린 것은 ‘89년, 무의탁 노
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제공을 위
해 용인에 무료양로원을 개원하면
서부터이다.



“우리 나라 노인들의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소외, 질병, 빈곤, 역할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꽃마을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노인이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즉 노인복지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꽃마을 설립에서부터 현재 3,600여명의 후원회원이 있기까지 오늘의 연꽃마을을 이끌어 온 각현스님의 이야기이다.

이후 연꽃마을은 노인들의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91년 서울에 '광명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97년 12월 현재 전국의 10개 도시에 부속의원을 개원하여, 연간 45만여 노인들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연꽃마을 부속의원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모든 진료와 치료비용이 무료이다.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가 진료를 맡고 있으며, 5개의 병원에서는 급식소를 개설,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 재가 노인들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친부모 이상의 봉양을 실천하고 있다.

연꽃마을에서는 노인들의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준고령자 및 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 및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 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꽃마을 간병인회를 운영하여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인문제 연구소를 설치, 노인문제 연구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 전문신문 '연꽃마을'을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련 서적 출판을 전담하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유발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꽃마을 식구들의 도움의 손길은 노인 뿐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 소녀 가장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한 집' 개원으로까지 이어져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정을 되찾아 주는데도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도움의 손길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후원회원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요즈음 IMF한파가 이곳 연꽃마을에도 불어 닥쳤다고 한다. 정작 후원회원들이 나눠왔던 것은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 못내 아쉽다는 각현 스님.

그래도 스님에게는 꼭 실현되어야 할 꿈이 있다. 바로 우리 나라



320만 노인들의 1차 진료는 광명 의원이 책임지고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은 우리가 잃어가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내 부모 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 모시는 사회'로 탈바꿈하는 바로 그 날이리라. 72

연꽃마을에서는 후원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후원금 납부는
지로번호 : 7529429(각 은행 지로창구)
연락처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9-9(정우빌딩)
전화 : (02) 203 - 3977
FAX : (02) 203 - 0855